

킬러문항 없었지만... 수능 ‘국·수·영’ 다 어려웠다

교육부 2024 수능 채점결과 발표

국어 표준점수 최고 150·수학 148 “변별력 잡았다”...적정난이도 논란 수학 22번 정답률 최저·만점자 1명

교육부가 2024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수능 난이도가 높았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적정 난이도를 맞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난이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기조로 출제된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까다로웠다”며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불수능이라 불릴만큼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로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쑤신다.

개인이 획득한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인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는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 분석했다. 교육부는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 받았던 9월 모의평가(144점)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크게 줄어들어(2520명→612명)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어영역의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능(7.8%)보다 낮아진 4.7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크게 줄어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시자 중 전 영역 만점자가 1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킬러문항으로 꼽힌 수학 문제의 정답률이 낮아 난이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BSi 등 입기업체에 따르면 수학 공통

과목 22번의 정답률이 1~2%대로 예측되면서 킬러문항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했다”고 일축했다.

유일한 만점자는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도(3명)보다 2명이 줄어들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평가원이 “난이도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은 확보하자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일부 난이도 부분은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변별력을 확보했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150점을 기록한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전략적으로 정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4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대상 실재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실시하며, 같은 날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대상 수능 실재점 기준 대입 지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6일 동안,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상담교사들로 구성된 ‘정시모집 대비 1:1 대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신안 팔금도서 SUV, 소형차 추돌... 2명 경상



지난 5일 신안 팔금도에서 차량 추돌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엘로우의 섬’ 신안 팔금도에서 차량 추돌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7일 신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55분께 팔금면 원산리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EV6 차량이 5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던 소형차 모닝과 충돌했다.

B씨 차량은 충격에 의해 튕겨져 나가 갓길에 비치된 화단과 부딪혔다.

갑작스런 충돌 소리에 놀라 나온 주민들은 사고 현장을 목격,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안좌면에서 암태면으로 향하던 A씨는 인근 축제 주차장에서 나오던 B씨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중앙선 쪽으로 향하던 차량과 직선 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며 “B씨가 앞쪽으로 돌아서 나왔다면 피할 수 있던 일이었다. 시민들이 교통법규 준수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해외 번호→국내 번호 둔갑 30대 사기범 실행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후 ‘메신저 피싱’한 30대가 실행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2년을 선고(추징금 1553만원)했다.

A씨는 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공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사기조직은 피해자 26명에 자

녀를 사칭, 악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예금을 무단 이체해 9억 421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에 ‘엄마 나 휴대전화가 깨져 수리를 맡겼어. 보험 신청해야 하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메신저 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지능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A씨의 번호 변작이 사기범행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 A씨가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전남 주말 봄 날씨... 평년보다 10도 높아

주말간 광주·전남지역에 이례적인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최근 광주·전남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늦가을 기온을 보이고 있다.

남서풍의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

는 이번 주말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겠다.

8일과 9일 예상최고기온은 각각 20도, 19도로 올들어 12월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4월 중순, 10월 하순 날씨와 비슷한 온도다. 정상이 인턴기자



어린이교통사고 ‘제로’ 다짐

제11회 광주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가 7일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려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교통사고 제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기자

광주 사립유치원 17곳 석면노출... “사업비 지원하라”

전체 136개원 중 12.5%로 ‘위협’ 시교육청 “떡볶이 우려 법적정 먼저”

광주의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석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유아건강권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석면 제거 사업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휴·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상 보조금 교부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

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과 환경연합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석면제거 공사비용을 지원함과 함께 2023~2026년 석면 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휴·폐·개원이 자유로운 사립유치원의 특성 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인허가 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인 기자

지적장애 50대 조카 돌보던 70대 숨진 채 발견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를 돌보던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부패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중증장애인 50대 조카는 끼니를 거른 채 방치돼 왔지만 무사히 구조됐다.

7일 순천경찰·순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8분께 순천 향동 한 빌라에서 A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 옆에는 지적장애 1급 조카인 B씨(54)가 함께 있었다.

‘의료 서류를 떼야 하는데 며칠간 보호

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문을 강제로 개방,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순천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 1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

A씨는B씨의 부모가 사망한 뒤 돌봐줄 보호자가 없자 자신이 50년간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

해 발견 직전까지 신고하지 못했다.

순천시는 1인 가구 장애수당을 받던 B씨에게 장애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A씨가 인력 지원을 원치 않자, 활동지원사 파견을 멈췄다. 시로부터 장애 현금서비스 등은 지속됐으나 실질적인 현장 보호 조치는 받지 못한 것이다.

순천시는 구조된 B씨를 건강검진 후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정성현 기자